

# 利害엷힌 OPEC의 콘덴세이트 분류기준

**작년** 11월 OPEC(석유수출국기구) 총회에서 합의된 콘덴세이트분류기준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. 최근의 OPEC 전문위원회평가에서는 회원국 생산 콘덴세이트의 75%만이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분류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OPEC쿼타를 23만B/D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,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되는 베네수엘라라는 이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.

콘덴세이트는 대기압과 상온에서는 액체이지만 매장되어 있을 때에는 기체상태인 탄화수소로서 超경질유의 성질을 갖고 있어 천연가솔린이라고도 불린다. 콘덴세이트 분류기준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①콘덴세이트는 OPEC의 쿼타적용을 받지않고, ②OPEC 전체의 통일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회원국별로 콘덴세이트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으며, ③따라서 일부 회원국에서는 콘덴세이트분류를 "quota cheating"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불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지난 84차 OPEC총회(1988. 11. 21~28)에서 합의된 콘덴세이트분류기준은 API비중(50° 이상), 기체/액체 비율(5,000 SCF/B 이상), C<sub>7</sub> 이상의 탄소분(3.5% 이하) 등이다. 그러나, 베네수엘라의 분류기준은 매장 특성에 초점을 맞춘 포괄개념으로서(API 40.2° 이상 주장),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다.

OPEC의 콘덴세이트생산실적은 금년 1/4분기에는

84만B/D 였으며, 금년 2월과 4월에 있었던 OPEC전문위원회의 콘덴세이트생산실적평가에서는 86만B/D 중 62만B/D만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콘덴세이트의 분류기준이 엄격히 준수된다면, 현재의 콘덴세이트생산량 가운데 23만B/D가 原油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이는 그 만큼의 쿼타를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. 이렇게 될 경우, 베네수엘라는 17~20만 B/D의 쿼타가 삭감되는 것과 동일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, 해당 물량만큼의 쿼타위반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콘덴세이트의 분류기준이 조만간 정착되지 않을 경우, 이는 OPEC쿼타제도를 전반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 쿠웨이트의 석유장관은 베네수엘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, OPEC은 현재 생산원유 중 200만 B/D를 콘덴세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.

UAE의 상습적인 쿼타위반과 더불어 베네수엘라의 콘덴세이트범위확대가 OPEC의 2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으며, 극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6월의 총회에 서도 이의 궁극적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. OPEC의 원칙적인 규율준수추구와 당사국의 점진적인 자제노력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. □ <에너지경제연구원, 「에너지 동향」>

OPEC기준에 따른 콘덴세이트재분류

(단위 : 천 B/D)

회 원 국	국별생산량	콘덴세이트부합	잠정콘덴세이트	잠정原油	原油
알 제 리	411	411	0	0	0
인 도 네 시 아	147	139	0	8	0
이 란	30	30	0	0	0
나 이 지 리 아	35	12	17	0	6
사우디아라비아	24	24	0	0	0
베 네 수 엘 라	209	5	33	31	140
계	856	621	50	39	146